

“내면의 정서, 사랑이 흐르게 ...”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293장 다함께

1.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2.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3.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 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4.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생활 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후렴]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 도 맡은이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3:1~3 다함께

¹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²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
도 아니요 ³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
이 없느니라

Ⅰ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내면의 정서, 사랑이 흐르게 ...”

2025. 1. 12. 주일예배 설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사람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업가는 이윤을 위해 일하고, 정치가는 정치적 소신을 위해서, 또 학자는 학문적 질문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분쟁으로 서로 다텍니다. 갈등하고, 패를 나누어 싸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의 항구도시인데, 로마시대에는 인구 60만 명이 넘는 큰 도시로, 물질적 풍요와 다양한 종교, 문화가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의 목적이 있음에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적은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 교회를 세웁니다. 화려했던 도시에 걸맞게, 고린도 교회는 종교적인 열심도, 영적인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 ‘어린아이 같다’ 고 합니다(고전 3:1). 이들이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육신에 속해 있는 자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일을 한다고 모여서는,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고전 3:3).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목적은 있으나, 그 목적을 이뤄가는 자신들의 내면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살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내면의 정서가 무엇이어서 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을 쓰게 됩니다.

※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의 정서가 무엇인지를 살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흐르고 있어야 하는 내면의 정서”

고린도전서는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먼저, 12장은 영적은사의 목록을, 14장은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3장은 성도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떠한 내면의 정서가 자기 안에 흐르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내면의 정서’ 는, 지금 내가 무언가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행케 하는 내 내면의 동기와 태도는 무엇인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존재 전체의 분위기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나 일을 할 때, 그것을 하는 주된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 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 전체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온 몸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인 십자가에 이르십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그 사랑의 영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당연히 이 사랑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된 정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정서가 아가페(agape)여야 하는 이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agape), 즉 아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내면의 정서가 아가페여야 한다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직통하는 언어, 또 천사 같은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고전 13:1). 둘째,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여 계시의 비밀을 알고, 세상 모든 지식을 꿰뚫어 내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고전 13:2). 셋째, 자기 몸을 불살라 누군가에게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흐르고 있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처럼, 오로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또한 명예나 칭찬을 위해서 행할 때, 그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고전 13:3).

※ 그 어떤 놀라운 일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

무슨 일, 무슨 사역을 하든지, 우리 내면의 정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아무 유익도 없다’ 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더욱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갈 때마다, 또한 일할 때마다, 그것을 행하는 내 내면의 정서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봅시다. 그렇게 살펴보고 또한 들여다보며,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사랑의 정서를 끄집어내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시다!

‘네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nothing). 네 인생에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 사랑이 없으면 구하고, 사랑이 있다면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주님 때문에 더 가벼워지는 우리의 인생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

- ①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흐르는 내면의 주된 정서는 ‘이것’ 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곧 ‘이것’ 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갈 ‘이것’ 은 무엇일까요? ♡
- ② ‘내면의 주된 정서’ 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실행토록 하는 동기와 태도, 존재 전체의 분위기 또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평소의 나는, 어떠한 일을 하거나 시작할 때,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까. 결정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 ③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주된 정서는 사랑, 그것도 아가페, 즉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이 필요한 내 인생의 자리가 있습니까. 잠시 묵상해보고,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으로도 표현해 봅시다.
- ④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